

 <b>문화재청</b>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b>		 <b>문화재청 50주년</b> 50th Anniversary of CHA
	<b>보도시점</b>	<b>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b>담당부서 (전화번호)</b>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02-3701-7631 / 7632	
<b>報道資料</b> [2011.12.26.]	<b>담당자 (e-mail)</b>	박대남(chpdn@korea.kr) 김정임(yooni@ocp.go.kr)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정보」에 동시게재			

##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특별전 개최

### - 국립고궁박물관, 2011.12.27 ~ 2012.2.5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의 환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특별전을 오는 1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다가 지난 6일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도서 150종 1,205책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도서들은 조선왕조의 국가 운영을 위해 편찬·수집되어 규장각 등 왕실 도서관과 지방의 사고에 보관되다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들이다. 그중에는 의궤 81종 167책과 기타도서 69종 1,038책이 포함되어 있다.

환수된 의궤는 고종, 순종 대에 제작된 것으로, 오대산, 태백산, 강화도 등 지방 사고에 보관됐던 분상본(分上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시에서는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와 함께 황제즉위식, 황태자 책봉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대례의궤』를 비롯하여 황실의 혼례, 출산, 잔치, 장례, 어진 제작과 관련된 의궤들을 통해 조선에서 대한제국기에 걸쳐 각종 의례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환수된 의궤 중 유일한 어람용인 『[순조문조]영정모사도감보완의궤[純祖文祖]影幀模寫都監補完儀軌』는 그동안 황태자를 위한 예람용 의궤만 알려져 왔던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도서는 대부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년]가 대출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토가 반출한 도서는 1911년 5월 일본 궁내성이 기안한 양도요청 공문을 통해 한일관계 사항을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과 '구통감부 채수본'을 이토가 반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조대에 창설되어 왕실도서를 보관, 관리하던 규장각에서 나온 도서들과 시강원 집옥제 등 각 관청과 전각에서 보관하던 도서들이 전시되며, 정조의 시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와 정조가 직접 저술한 태조의 옛집인 함흥 본궁에서의 의식을 기록한 『함흥본궁의식咸興本宮儀式』 등을 통해 역대 임금 가운데 최고의 저술가이자 학자 군주로서의 정조의 면모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환수된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의 기록과 짝을 이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실물 왕실 유물들이 함께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관람 의의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관련 영상물과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부터 최근까지 환수된 대표 문화재와 관련 영상물도 전시되어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했다.

행사기간 중인 2012년 1월 12일 오후 2시부터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재 조선왕실 도서의 환수 과정과 의의」 등의 특별강연이 열리며 또한, 어린이 대상 전시 해설과 주말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선왕실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울러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1. 특별전 개요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 특별전 개요

### □ 특별전시

- 전시제목 :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 전시기간 : 2011. 12. 27(화) ~ 2012. 2. 5(일)
- 관람시간
  - 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 오전 9시~오후 7시
-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 관람료 : 무료입장

### □ 특별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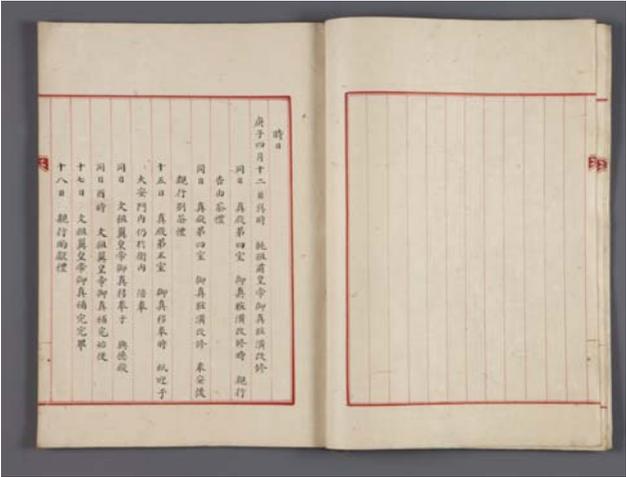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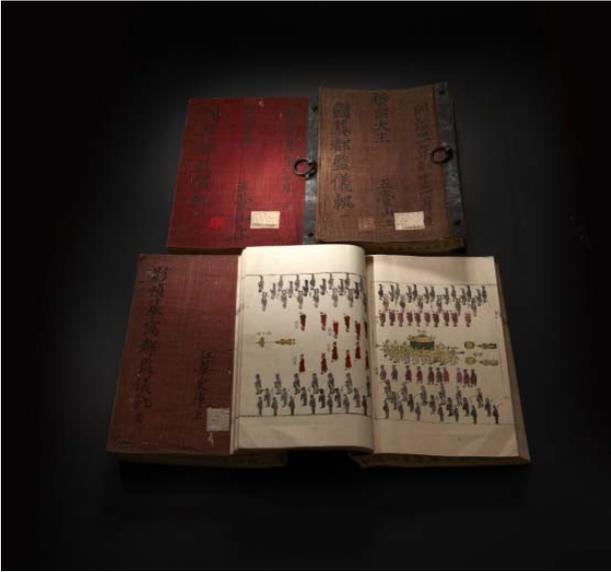
- 강연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14시~17시
- 강연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
- 강연내용
  -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재 조선왕실 도서의 환수과정과 의의/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14시
  - 이토 히로부미 반출 왕실도서의 현황과 의의/이민원(원광대학교수) 15시
  - 환수 조선왕실 의궤의 현황과 특징/김정임(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16시

### □ 특별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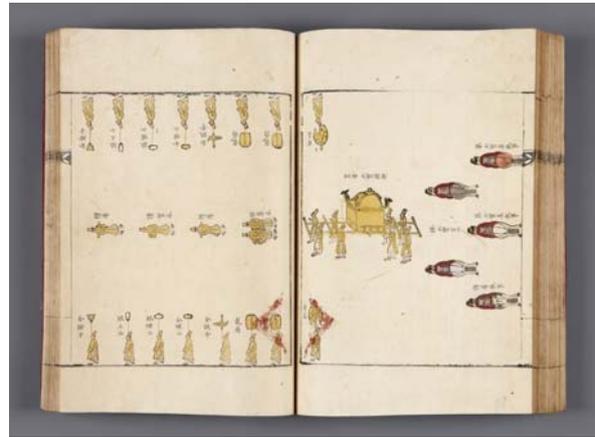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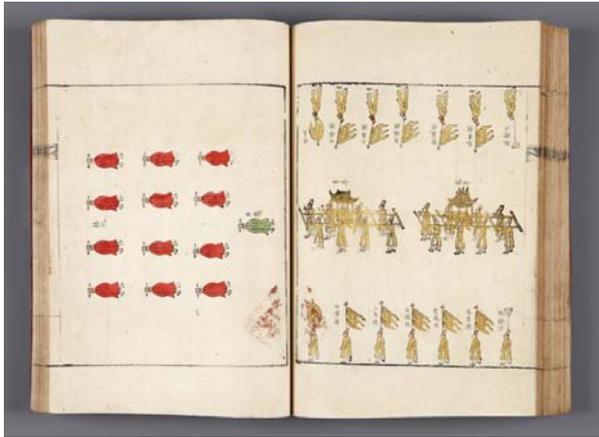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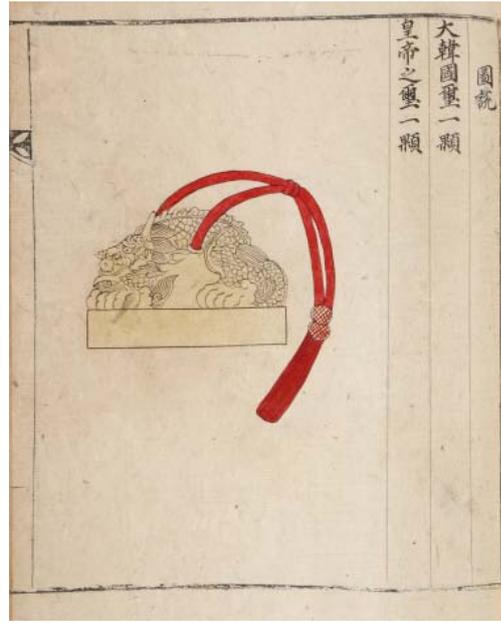
- 어린이 대상 : 전시해설
- 가족 대상 : 주말프로그램 운영

# 사진 자료

## [조선총독부 반출 의궤]



『[순조문조]영정모사도감보완의궤[純祖文祖]影幀摸寫都監補完儀軌』, 1899년(고종 26) - 1900년(고종 27), 필사본  
반환된 의궤 중에 어람용(황제 열람용) 의궤로 황색의 비단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의궤는 황태자를 위한 예람용 의궤만 알려져 왔던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대례의궤大禮儀軌』, 1897년, 필사본,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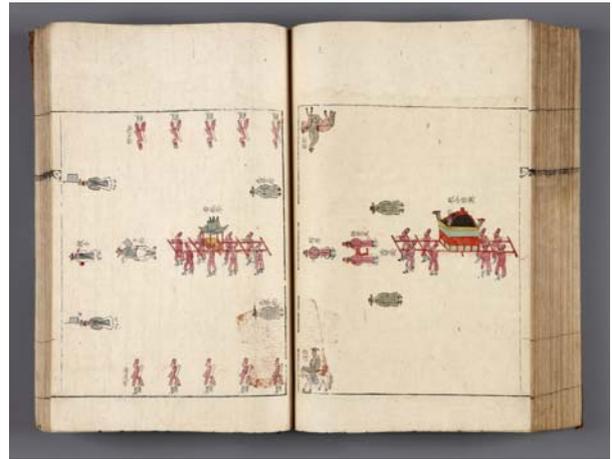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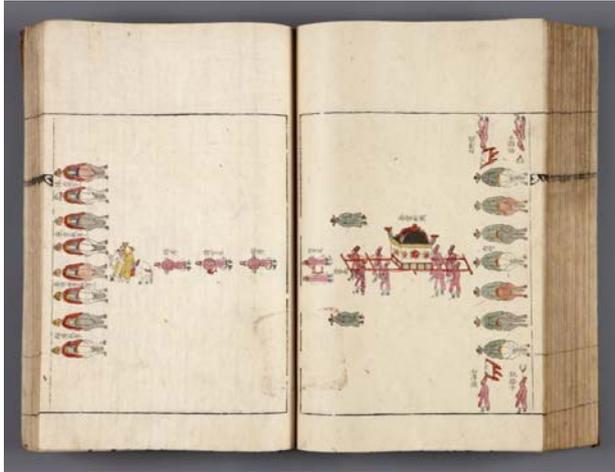
황제 즉위식과 황후·황태자 책봉, 각종 의장물과 어보, 어책 제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황제국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황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이전의 거북 모양의 손잡이에서 용 모양 손잡이로 변화한 ‘대한국새 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의 그림,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가마와 의장물이 그려진 황제 즉위식 행렬도가 실려 있다.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수록된  
고종비명성황후금보(1897년)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수록된  
고종비명성황후금책(18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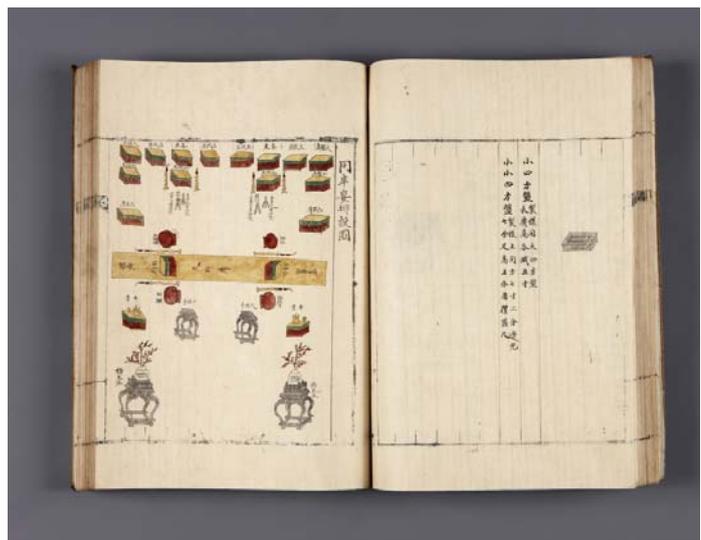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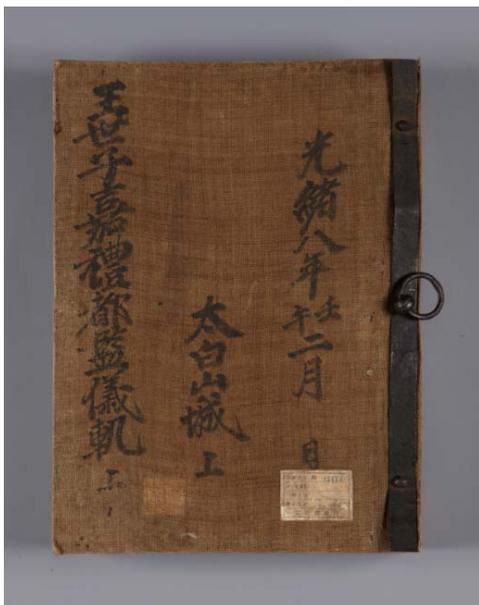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1866년(고종 3), 필사본  
 신부 명성왕후를 모시고 궁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그린 반차도 중에서 왕후로 책봉하는 금보와 교명을  
 신고 가는 가마를 그린 장면(금보를 신고 가는 가마(좌측), 교명을 신고 가는 가마(우측))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高宗明成后]』  
 에 수록된 고종비 명성왕후 금보(1866년)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高宗明成后]』에  
 수록된 고종비 명성왕후 책봉교명 (1866년)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1882년(고종 19), 2책. 필사본  
 1881년(고종 18) 11월에서 이듬해 2월 민태호閔台鎬의 딸을 간택하고 세자빈으로 책봉하는 가례의식  
 을 기록한 의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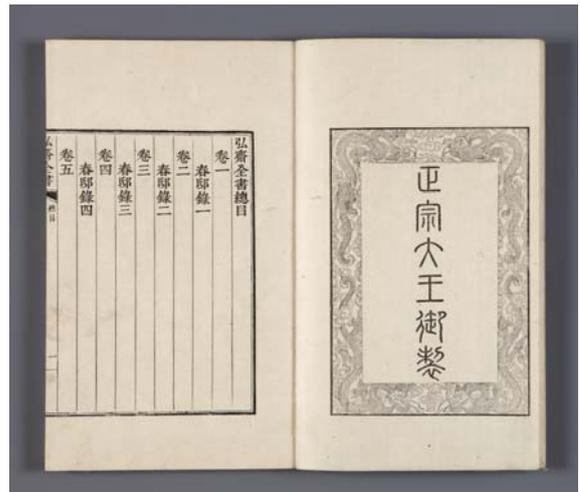
『[신축]진찬의례[辛丑]進饌儀軌』, 1901년(광무 5) 4책, 활자본

고종황제가 당시 대왕대비였던 헌종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의 71세[망팔望八]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1901년(광무 5) 경운당慶運堂에서 행했던 잔치에 관해 기록한 의례로 이 잔치 장면을 그린 병풍도 함께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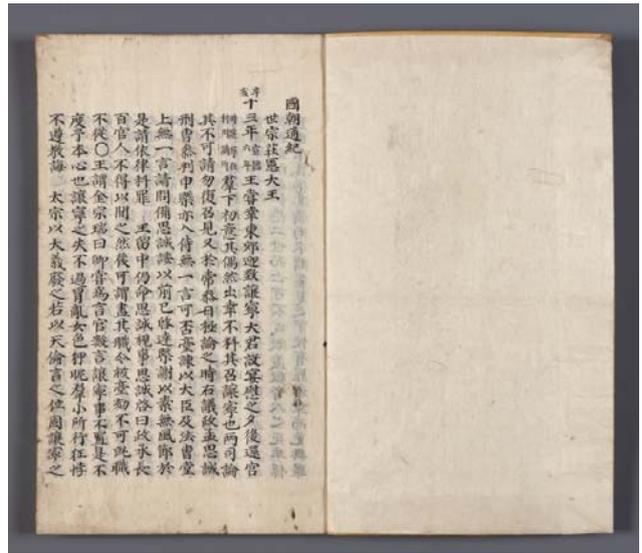


효정왕후 71세 생신 축하 잔치 병풍孝定王后古稀進饌圖, 1901(광무 5), 비단에 채색, 십폭 병풍  
 효정왕후孝定王后의 71세[망팔望八]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1901년(광무 5) 경운당慶運堂에서 행했던 잔치그림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반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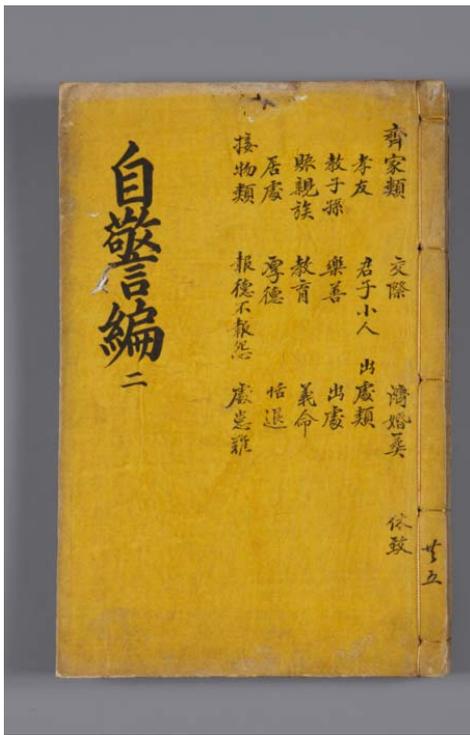


『홍재전서弘齋全書』, 정조正祖 지음, 조선(순조), 100책, 활자본  
정조의 시문집으로, 정조 사후 순조에 의해 간행된 100책 완질본으로, 희귀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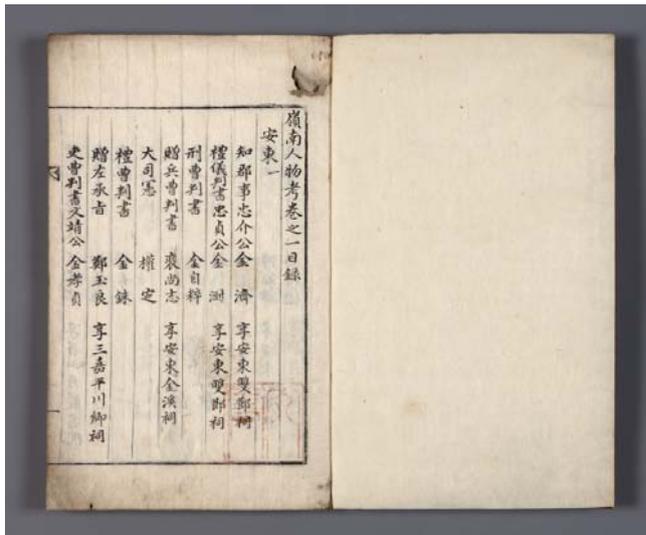
『국조통기國朝通紀』, 조선, 10책, 필사본

조선역대 사적을 편년체로 쓴 사서로, 주로 왕명, 왕의 언행, 전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규장각에 1책만 전해져왔으나, 10책 완질본으로는 유일하다.



『자경편自警編』, 조선료趙善璿 편, 1724년(경종 4), 5권 5책, 목판본

자신을 경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송대 여러 인물의 언행을 모아 기록한 책이다. 1224년(송 영종寧宗 17)에 조선료趙善璿가 편찬한 것을 1724년(경종 4)에 조선에서 5권 5책으로 펴냈다. '시강원侍講院'(왕세자 교육기관) 도장이 찍혀져 있다.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채홍원蔡弘源 등 지음, 조선, 7책, 목판본  
 조선초기부터 정조때까지의 경상도 출신 인물들의 사적을 엮은 책으로, 기존 규장각에 전해지는 10책에 이 7책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며, 이로서 완질을 갖추게 되었다. ‘내각內閣’(규장각) 도장이 찍혀져 있다.